



## 지귀의 운이 가고 천신의 운이 오는도다

地鬼

天神

신축년 새해가 밝아왔다. 지난 경자년은 다사다난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어지러운 한 해였다. 이맘때면 송구영신이란 말을 늘 하게 되는데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이지만 수도자(修道者)의 입장에서 때에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은 지운이 가고 천운이 오는 시기(時機)로서 즉 인간의 생사(生死)가 결정되는 엄중한 시기**

하늘에는 다 그 때가 있다. 소위 천시(天時)를 말하는데 지금은 무슨 때인가? 지운(地運)이 가고 천운(天運)이 오고 있는 때이다. 지귀(地鬼=마귀)는 사방의 신으로 죽는 세상을 주장하고 천신(天神)은 영원한 생명의 신으로 죽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강증산 선생은 “묵은 하늘(지귀=마귀)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새 하늘(천신=하늘)은 사람 살리는 공사만 본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묵은 하늘(마귀)이 지배하는 죽음의 세상을 보내고 새 하늘(마귀)을 이기신 하나님(천신)이 다스리는 죽음을 없는 세상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송구영신의 참된 의미가 될 것이다. 이는 강증산 선생의 표현을 빌린 것일 뿐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 “씩씩한 것이 아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방이 이같이 삼키바 되리라(고린도전서15:54).”고 하였는데 이 구절의 이면에는 썩고 죽는 지금이 세상은 생명이 사방에 삼켜져 있다는 뜻이 들어 있다.

사방(마귀)이 생명(하나님)을 이기면 죽고 생명(하나님)이 사방(마귀)을 이기면 죽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때까지는 마귀(사방)가 하나님(생명)을 이긴 세상 즉 죽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생명)이 마귀(사방)을 이길에 따라 죽음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운이 가고 천운이 오는 시기인 지금은 결국 인간의 생사(生死)가 결정되는 엄중한 시기에 들어왔다는 의미이니 소위 천지개벽의 시간대에 들어왔다는 말이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고 가을에 추수하는데 24절후에 맞추어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때를 모르는 자를 절부지(節不知) 곧 “절부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금은 미륵불(정도령)이 인생을 추수하는 시기로서 쭉정이는 불구렁이에 던져지고 알곡만 추수하게 되는데 그 미륵불을 만나 알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흑호이전중입운(黑虎以前中入運)의 마지막 시기가 곧 흰 쥐띠 해와 흰 소띠 해가 된다 - 『중입자생(中入者生)』

그래야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쥐띠해와 소띠해에 해당하는 자축(子丑)은 어두운 시간대이기에 어둠의 신이 활동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을 겪지만 그 다음에 인묘(寅卯)가 되어야 어둠이 물러감**

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신축년의 의미를 먼저 시간상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하루 중 축(丑)의 시간대는 사경(四更: 새벽 1시~3시)으로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삼경(三更: 밤 11시~새벽 1시)에 해당하는 자시(子時) 즉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앞이 보이지 않아 끔찍할 수가 없었다. 어두운 시간대에는 어둠의 신(마귀)이 활동하므로 사람들이 길걸음을 못 잡는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 지구촌이 갈팡질팡 큰 혼란을 겪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이다.

그래서 자축(子丑)은 미정(未定)이라는 말이 있으니 자축에는 어두워서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아직 정(定)할 수 없다. 이러한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을 고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라는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마귀(육신의 영)가 사기는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하는 즉 반대생각을 체질화해야 감로해인(마귀 죽이는 무기)을 받고 심령의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묘(寅卯) 사가지(事可知)이다. 인묘가 되어야 어둠이 물러가고 길이 보이게 되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다는 뜻이 된다.

**검은 호랑이(黑虎)의 해 이전이 되는 신축년 즉 흰 쥐띠 해와 흰 소띠 해가 중입(中入)의 마지막 시기이며 이때 생미륵불(정도령)을 따라야 구원**

격암유록에 “선입자망(先入者亡), 중입

자생(中入者生), 말입자사(未入者死)”라고 하며 “흑호이전중입운(黑虎以前中入運)”이라 했으니 흑호는 60갑자에서 임인(壬寅)이나 흑호 이전인 신축이 중입의 마지막이 된다. 신축년까지 인생을 추수하는 미륵불(정도령)을 만나 감로해인을 받아 알곡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60갑자는 60년마다 돌아오니까 어떤 신축년 인지는 각자가 알아야 하는 것인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의미상으로 보자면 축(丑)은 소(牛)를 의미한다. 우리가 보통 “두각(頭角)을 드러낸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양을 일컫는 말이다. 두각은 ‘마두우각(馬頭牛角)’의 줄임말로 풀이하면, 말은 십이지지의 오(午)이고 말머리에 뿔이 돋으면 소(牛)가 된다. 마두우각은 ‘만인 위에 뛰어난 구세주’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한자와 동양철학을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결국 소(牛)로 상징되는 분이 바로 하늘의 뜻(영원한 생명)을 지상에 실현(지상천국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소(牛)자를 보면 사람 인(人)자와 십(十)자가 합쳐져 있으니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사람(人)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 울음소리 “음메~”는 영적인 엄마(정도령)를 부르는 소리요 옛 달라는 소리이다. 동시에 영적 엄마(정도령)가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도 되는 것이다. 도(道)의 젖은 소위 감로해인을 비유한 것으로, 세상 음식은 삼시 세 끼 짜박 먹어도 결국에는 굶어 죽지만, 도의 젖인 감로해인은 삼순구식(三旬九食) 즉 한 달에 아홉 번만 먹어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즉 사람 속의 마귀를 죽이는 무기인 감로해인을 모르면 정도령을 결코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그 마지막 주인공 미륵불(구세주 정도령)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감(甘)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격암유록에 “시모자생(俞謀者生) 중모자사(衆謀者死)”라는 구절이 있는데, 풀이하면 “감(甘)나무를 피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세상 무리를 피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말로서 말세에는 감(甘)나무 즉 미륵불(정도령)을 찾아 도를 닦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감(甘)나무 즉 미륵불(정도령)을 따르는 자가 감이 익은 것처럼 스스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 밥이 될 수 있으니 자만하지 말고 온 힘을 기울여 영생학을 실천해야 한다**

감이란 초여름부터 열리게 되는데 많이 열리지만 또한 많이도 떨어진다. 비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많이 떨어진다. 감이란 감(甘)나무 즉 미륵불(정도령)을 따르는 자를 상징한다. 정도령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어도 실천하지 않고 그냥 영생만 얻으려 하기 때문에 정작 미륵불을 따르다고는 하나, 각각의 사정과 신앙의 자세가 달라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수수 떨어진다. 감이 익으면 해서 “감아, 열리려거든 떨어지거나 말고 떨어지려거든 열리거나 말아라.”라고 말한 고인(高人)도 있는 것이다. 감(甘)나무의 진액(감로해인)을 받아먹는 데 온 힘을 기울이면 그 감이 떨어지지 않고 잘 익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감(甘)나무에 붙어있는 힘이 약해서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도 떨어지는 것이다. 잘 익어가다가도 잘 익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까치가 와서 쪼아 먹기도 하는 것이다. 마귀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감(甘)나무와 하나가 되어 죽자 살자 매달려 있어야 한다.

전 지구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인류의 모든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다. 단순한 전염병으로 치부하지 말고 지운이 가고 천운이 오는 즉 죽음의 세상이 가고 죽음을 없는 세상이 온다는 천시의 흐름을 모른다면(節不知: 절부지) 아무리 영웅, 문장가, 학식이 높은 자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선비라 할 수 없고 비록 우부우녀(愚夫愚女)라도 천시를 안다면 높은 선비라 할 것이다. 천지공사의 흐름이 이러할진대 만에 하나라도 이때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도령을 만나 감로해인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치지 않는다.\*

고서연구가 / 박명하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99>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생존한다”**

생각이 흐려지면 피가 썩는다. 나를 의식하면 피가 썩는다. 육신을 부리면 피가 썩는다. 이 사람이 선포한 새로운 말씀을 과학자들이 앞으로 실험해볼 것이다. 첨단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해매는 미지의 문제를 여기서 풀어주고 있다. 소련의 과학자가 고주파 활영기로 사전을 찍어보니 사람 몸에서는 강한 광선이 나오고 나뭇잎에서는 약한 광선이 나

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대체 그 빛이 무엇인지 연구를 거듭했지만 그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사람의 몸에서 광선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며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물질이 쏟아져 나와 모든 만물에 스며 들어가 만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 행복한 노년 준비

#### 내 몸 얼마나 아십니까 - 뇌

사람이 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돌이나 죽은 나무토막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과 활동이 없으면 나이 들어 무서운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몸무게의 2% 정도를 차지하지만 평상시 움직이는 데 전체 산소 소모량의 20%를 소비하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20%가 흐릅니다. 뇌는 중추신경계 중에서 그 기능이 매우 발달된 부위로 물질대사가 매우 활발합니다. 곧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뇌는 대뇌, 소뇌, 간뇌, 뇌줄기로 구분됩니다.

대뇌(大腦, cerebrum)는 좌우 2개의 반구로 나누어 있으며, 표면에는 주름이 많아 표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대뇌의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겹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는 회색질이고, 속질은 신경 섬유가 모여 있는 백색질입니다. 정보의 기억, 추리, 판단, 언어, 감정 등 정신활동 등 대뇌 기능의 대부분은 겹질에서 담당합니다.

대뇌 겹질은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4개의 엽으로 구분되며, 각 엽 내에서 기능별로 감각엽, 연합엽, 운동엽으로 구분됩니다. 감각엽은 감각기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고, 연합엽은 감각정보를 종합 분석 판단하여 명령을 내리며, 운동엽은 수의 운동과 골격근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소뇌(小腦, cerebellum)는 대뇌의 뒤 반구로 나뉩니다. 대뇌와 함께 골격근을 조절하여 수의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시킵니다. 간뇌(間腦, diencephalon)는 대뇌 반구와 중뇌 사이에 있으며(사이뇌),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상(視床)은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대뇌의 적절한 중추로 선별하여 전달하는 중계소 역할을 담당함

김주호 기자

### 이슬성신이란?

성경, 불경을 비롯한 각 종교의 경전과 고대 예언서, 비결서에는 빛과 같은 이슬이 하나님의 신이며 그 이슬 성신을 몸에서 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인으로서 이긴자, 구세주, 미륵불, 정도령, 진인이라고 예언해 놓았다. 이슬은 자아의식을 멸하고 성령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 상에는 빛난 이슬(이슬성신) 불

경, 노자의 도덕경, 강증산의 중화경 상에는 감로(甘露), 대열반광(大涅槃光), 법성광명(法性光明), 고예언서 격암유록, 정감록 상에는 감로해인(甘露海印), 삼풍해인(三豐海印)으로 예언되어 있다. 조희성님은 그 예언대로 이슬성신 감로를 내린다. 감로를 직접 받고 있는 수많은 체험자의 증언과 이슬성신이 찍힌 동영상 및 사진으로 이것이 증명된다.\*

**경축 41회**

# 이슬성신절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2021년 1월 1일

이기는 삶

### 썩은 가지는 잘라내라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튼튼한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마음이 약하여 차마 썩은 가지와 비뚤어진 가지를 잘라내지 못한다면 점차 말쑥한 가지까지 썩어들어가 결국 그 나무는 죽고 말 것이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새순이 나서 전보다 더 싱싱하고 무성하게 자란다. 그래서 더욱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가지를 잘라내야 하는가?

#### 가지치기 왜 해야 하나

첫째, 햇빛을 가리는 가지는 잘라야 한다. 그늘 밑에 있는 가지가 햇빛을 받아서 잘 자라기 때문이다. 둘째, 안쪽으로 뻗은 가지를 잘라야 한다. 안으로 자라는 가지는 다른 가지들의 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도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셋째,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성한 가지도 썩는다. 넷째, 서로 영긴 것을 잘라내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가지는 미련 없이 잘라내야 한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위와 네 가지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상대방이 싫어할까 염려되어, 또는 받아들이지 않아 큰소리가 오가면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걱정되어 말을 못 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아래의 네 가지 요소에 해당된다면 욱먹을 각오하고 제재(制裁)를 가해야 한다.

첫째, 신앙인으로서 빛을 가리는 행동은 제재(制裁)를 가해야 한다. 고참(古參)이라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자신의 언행은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형제를 바로잡아준다고 충고하는 행위나, 화가 난다고 자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여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과감히 잘라

내야 한다.

둘째,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된다. 혼자만 진리 말씀을 알고 혼자만 실천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생활로 일관하며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셋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하는 자나 나의 신앙을 썩어들어가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아파도 잘라야 한다. 아까워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들도 그 영혼이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영적 독버섯은 뽑아버려야 한다.

넷째, 급진적인 문제로 서로 반복하는 관계나 서로 간에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 성경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

라고 했다. 남의 돈을 쓰고도 갚지 않는 비양심적인 행위나 남의 돈을 투자하게 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여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헛신앙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주지 않는다.

#### 복 받을 행위를 해야 복 받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복을 받되, 원망이나 저주를 받아서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지탄 받을 일을 하면 지탄받는다. 가장 평범한 이치에 따라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는 행위나 요소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 건강한 조직과 건전한 신앙인을 만드는 일임을 명심하자.\*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 메시아 구세주님의 상징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symbol of Christ?

만약 누구라도 이슬성신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성신은 사망을 이긴 이긴자 구세주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 If anyone drinks the Dew Spirit, that person shall live forever. Because the Dew Spirit is the Spirit of the Victor Christ who has overcome death.

그러나 이슬성신은 주인공 이기신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 However, the Dew Spirit cannot pour out until the day of the Lord comes.

우리의 이긴자 구세주 조희성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슬성신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 Our Lord Victor Christ Cho Hee Sung is pouring out the Dew Spirit for the salvation of mankind.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슬성신으로 이스라엘에 함께하시며, 그 이스라엘은 백합꽃같이 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Bible says “I will be like the dew to Israel; he will blossom like a lily.(Hosea 14:5)”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긴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으므로 이스라엘은 이긴자와 같은 뜻의 말입니다.

▶ In the above scriptures, ISRAEL means WINNER. Since God gave the title of ISRAEL to Jacob who wrestled with an angel and overcome, ISRAEL is the same meaning as the Victor.\*

by Alice

## 세례요한의 잘못된 신관(神觀)

신관(神觀)이란 신을 보는 관점을 말한다. 세례요한은 유대 사람으로서 성경 마태복음 3장 16-17절, 마가복음 1장 9-12절에 나오는 인물이다. 그는 유대 대 제사장의 아들이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매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상류층 금수저에 속한 사람이다. 그는 의인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덕망 높은 사람이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예수』\_요아힘 파티니르(Joachim Patenir) 1510년 작

#### 공중신의 아들인 예수

성경에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자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내게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나요” 하면서 마치 못해 세례를 베풀기로 허락한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 공중하늘에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소리를 들은 세례요한의 신관은 하나님이 공중하늘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나” 하면서 광야에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외쳐댔다. 이 소리를 듣고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과 많은 유대인들

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시발점이다.

사실 세례요한의 신관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다 공중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오! 하나님” 하면서 공중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관으로 말미암아 그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재에 대해 착각과 착오를 하고 있는지

지금도 고인이 되고 없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그 잘못된 책임은 100% 세례요한이 져야 할 것이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 속에 있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는 말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한 사람은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이

다. 그들은 영혼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하는 말이다. 성경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영은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은 피로써 마음이 조성되므로 마음이 영이라면 피가 영이요 피로써 살이 되고 몸이 되는고로 몸이 영이다.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혼은 마귀의 마음이다.

#### 공중신은 마귀다

사람 몸은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의 병존체이다. 하나님의 신이 마귀신에게 포로가 되어 갇혀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점점 약해져서 마귀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라는 성경말씀대로 하면 공중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는 마귀가 있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는 천신재심(天神在心)이라 하겠다.

구세주 정도령님 말씀은 인간의 마음

중 양심이 하나님의 신이요 욱심인 나라는 의식이 마귀신이자 사람을 죽이는 사자귀신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제는 어서 자귀신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제는 어서 양심을 좇고 공중의 권세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라는 성경말씀대로 하면 공중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는 마귀가 있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는 천신재심(天神在心)이라 하겠다.

짜지면 이것이 천지개벽의 일부가 될 것이다.

2000년 전 로마시대에는 천동설을 정설로 알고 있던 로마수뇌부가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지동설이 과학적인 진리가 되었듯이 공중신은 마귀신이요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이 학설이 종교적인 진리가 될 것이다. 이 학설이 세계 만민들이 다 알게 될 때에는 천동설 지동설 때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켜 천지개벽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오양현 정로

### 신간 안내

정도령 **아니면** 절대로 풀 수 없는 신비한 예언서

## 격암유록신해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류의 미래 불안!  
격암 남사고 선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 예언!!  
감로해인의 주인공 정도령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불확실!!!

전국 서점 절찬리 판매중 ...역학 예언 베스트셀러  
신이 이끄는 자 이 책을 만나리라!!!!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80회)

#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힘닿는 데까지 구원해보겠습니다!”

## 11절 :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뱀다
-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 3) 빛의 하나님에 왜 육신을 남기시고 환원하셨을까
-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들게 하겠다
-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뱀다

(지난호에 이어서)

영모님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신이 둘째아담한테로 옮겨와서 완성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 역사를 해보니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 보이더라. 그러나 너까지 괜히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에 둘째아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힘닿는 데까지 구원해보겠습니다. 또 저에게 부여된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한 음성으로 “네 맘이 참 아름답고 선하구나! 그래 너는 나보다 더 낫다. 하기가 모든 전권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정에 동참해보니 참으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이 은혜 역사를 하면서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긴자가 된 후 언젠가 한 번만 서고 나면 뼈골 속이 쭈서오고 오한이 나서 발발 떨리고 나중에는 피를 토하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아담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단에서 죄인들의 죄를 역겨워하지 않고 오염 받아 사랑으로 씻어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로 이 세상사람 가운데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긴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평생을 통하여 그 모진 연단을 받은 바 있으며 사선의 고비고비를 넘어 다져진 연단이 있는 고로 이런 험한 일을 하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높음이라면 이런 일을 하루라도 할 자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둘째아담 이긴자가 죄인, 단 한 명의 죄를 담당하는데도 몇 날 며칠 동안 피를 토하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긴자 하나님의 영은 마귀의 영이 자라는 속도보다 무량대수 배의 무한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고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긴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인간의 수효는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 지 20년이 경과될 즈음에는 단 1시간 만에 인간의 병마가 들어왔다가 물러가는 거룩한 몸으로 변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 이긴자가 사람 몸을 벗고 빛으로 환원되면 인간은 못 보게 되어 지옥이지만 하나님이 된 사람만 보광하신 주님을 보게 되어 구원

그리고 구원의 역사 20년을 행하시고 2000년대에 이르러 되자, 이제 단 30분 만에 인간의 죄 담당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어서 2002년 1월 2일에 이긴자께서 단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우주에 꼭 찬 마귀를 일초도 걸리지 않아 그냥 그대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발발 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 사람이 설교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거의 거의 끝나가요. 이제 척 바라보지만 하면 마귀가 전부 섬멸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뭐 주절거리고 떠들 필요가 없어? 바라보지만 하면 끝나는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얼마 후에는 빛으로 환원한 상태에서 설교가 필요 없는, 척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순식간에 죄를 소멸시키는 때가 올 것을 계시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아담이 181년 음력 6월 28일에 김포에서 태어나서 오십이 다 되어서 밀실에 들어가서 3년간 소변으로 계속해서 피를 쏟고 1980년 10월 15일에



회로 모양으로 회전하는 이승성령(국선광선)은 영생을 주는 생명과일이고 구세주의 분신이다

이긴자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이긴자의 설교말씀(2000. 9. 20)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몸을 입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죄인이 되었던 거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피를 다 쏟아 버리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도로 환원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외이긴자께서 1980년 10월 15일날 “너는 이제 이긴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밀실에서 둘째아담 이긴자가 하나님으로 도로 환원되었다가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다시 인간의 몸을 쓰고 24년간 죄 담당하시다가 또다시 하나님으로 환원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바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인간의 몸을 쓰고 와서 오늘날 사람 말을 하고 있지 만은 실은 때가 되면 다시 환원이 될까? 안 될까? 다시 환원이 되면 인간은 못 보. 하나님이 된 사람만 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못 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이야. 할 수가 없어. 바로 이런 백보좌 심판자야.” [2000년 9월 10일 설교말씀 중에서]

승리제단 성도들은 ‘이긴자께서 하나님으로 환원될 것’을 일러 ‘보광(普光)’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 보광하실 때에, 육신을 남기지 않고 빛의 하나님으로 환원되는 것과 육신 즉 시신을 남기고 빛의 하나님으로 환원되는 것, 이렇

게 두 가지의 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이 비밀리에 움직여요

이긴자의 설교말씀(2000.11.07.) 가운데, “이 사람이 언제 어느 때에 말없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이 비밀리에 움직여요. 이 사람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어야 돼? 안 해주어야 돼?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가져가지고 또 ‘예후, 속였다고 이렇게 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제 끝까지 달려야 복을 받지, 이제 복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라고 하셨는데, 이는 마치 육신을 남기지 않고 빛의 하나님으로 환원될 것처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 14일에 이긴자의 설교말씀을 보면, 앞으로 분신으로 역사할 것을 틀림없이 암시하고 있지만 이긴자가 육신 즉 시신을 남기고 없어지게 될지 아니면 오염된 죄를 다 녹이고 육신마저 남기지 않고 빛의 하나님으로 환원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이 미국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몸이 영국도 있고, 불란스에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 사람의 몸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초창

기에는 이 사람의 분신이 움직이는 걸 보 여줬죠? (예) 거어~ 저~ 충청도에서 ‘가자, 가자’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도 있고, 이제 사방에서 전부 ‘가자, 가자’ 해서 이리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신으로 움직인다는 게 명확한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 그래 안 그래? (아닙니다) 뭐야 아니야! 분신으로 움직이는데, 없어도 여기 분신이 있어요, 여기.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없다고 해서 예배도 안 보고 그러면 그건 지옥 가죠? (예) 여기 매일 예배를 봐~ 매일! 매일 예배를 봐야 그래야 피가 맑아지고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이 되어서 죽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보통 노력을 해가지고 될까? (안 됩니다) 그리~ 그리~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 이긴자 구세주는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보광하실 것을 예고하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구세주의 1차 옥중 생활 때,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육신을 남기고 빛의 하나님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계시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성경 묵시록의 7년 대환관이라고 하는 7년 옥고를 당하고 있던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감방 건너편에 있던 재소자 이동철씨를 집중적으로 전도하셨습니다. 교도소에서 운동장에 나와서 한 시간 동안 운동할 적마다 그 사람에게 진리말씀을 전하자, 어느 날 그 사람이 “주님이 생명과일입니다.”라고 먼저 깨닫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 머리가 갠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동철이라는 사람이, “주님이 생명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로 생명과일을 먹는 것이요, 주님을 보는 것이 눈으로 생명과일을 먹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출옥하신 구세주께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머리가 뛰어나고 아이큐가 높은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징역 7년째에 8.15광복 특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차 옥중 때에 가석방 소식을 듣고 재소자 이동철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석방되어 나가지만 다시 옥중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때는 내가 옥사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영육일체를 논하셨는데, 그리고 구세주는 영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기에 속하는데,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루었어! 내가 회개되어야 천국이 되어지고 또 영생 얻게 된다.”

과연 구세주의 말씀대로 7년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옥중으로 들어가셨는데, 2차로 옥중으로 들어간 구세주께서는 보광(普光)하신 것입니다.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2004년 6월 19일에 육신을 남기고 빛의 하나님으로 환원하셨는데, 이렇게 될 것을 가석방 1년 전에도 주님께서 옥중서신을 통해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보광(普光)할 것이라고 계시하신 바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보광을 계시한 옥중서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초초로 하나님의 얼굴을 사이는(새기는) 것이 잘 안되면 사진으로 속달하여 습관적으로 사셔야(새겨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고 마귀가 침범할 수 없게 되면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정금제 권사에게 내가 특별히 말한다. 초초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가 축복한 축복물을 일주일 간격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라. 약속이나 가제를 종이봉투에 담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축복받아가도록 하라. 만약 정권사가 숨이나 가제를 살 돈이 없으면 제단에서 사주도록 하라. 정권사에게 격정하지 말라고 하라. 내가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라.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나는 빛을 받게 된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뿌려라.”(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 들어가는 말

석가모니의 모든 어록을 기록하여 남긴 것이 불경(佛經)이다. 또한 불경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을 대장경(大藏經)이라고 한다. 대장경이라는 뜻은 큰 대(大), 갑출장(藏), 날 경(經)이라고 읽고 뜻은 뭔가 중요한 것을 숨겨 놓았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책을 읽을 때 작가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 말이다.

불교에서도 믿음을 신앙으로 하지만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신앙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마음을 정하고 목표를 향한 믿음을 내어야 처음 마음을 낸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종교는 마음을 정직히 갖고 시작해야 하는데, 최근의 사태를 보면 정직과는 거리가 너무 먼 스스로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욕심을 크게 내어 보이는 것은 다른 이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1>

더할 뿐이다. 예를 들어 시인(詩人)들이 시를 남길 때 시인은 글자를 남기는 것으로 알지만 시인이 왜 이 시를 무슨 생각과 의미로 시를 썼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불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불경의 증일아함경을 보면 제 일권 서쪽에 아래와 같이 시작이 기록되어 있다.

## 增壹阿含經卷第一 서품(序品)

自歸能仁第七仙, 演說賢聖無上軌; 자기능인제칠선, 연설현성무상계; 永在生死長流河, 世尊今爲度黎庶. 영재생사장류하, 세존금위도려서. 일곱 번째 신선인 능인(能仁)께 귀의하옵고 현성(賢聖)의 위없는 법 연설하리라. 나고 죽는 긴 강에서 헤매고 있을 때 세존께서 못 중생들 구제하셨네. [해석] 위 경구 중 “自歸能仁第七仙(자기능인제칠선)을 살펴보자. 이를 한글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일곱 번

째 신선인 능인(能仁)께 귀의하옵고”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엇일까? 바로 아래 경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석가모니가 자기가 일곱 번째 부처라고 하는데 동대 역경원에서 주장은 “석가모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석가모니는 과거 칠불 중에 일곱 번째에 해당하므로 제 칠선(七仙)이라 한다. 고대 인도에서는 불타를 존칭하여 선인(仙人)이라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일까?

## 增壹阿含經卷第四十五

爾時, 世尊便說斯偈: 이시 세존변설사계: 初佛八萬四, 次佛七萬歲, 초불팔만사, 차불칠만세, 毘舍婆六萬, 拘留壽五萬, 비사파죽만, 구류수오만, 一萬二萬年, 是拘那含壽, 일만이만년, 시구나함수, 迦葉壽二萬, 唯我壽百年, 가엽수이만, 유아수백년. 일곱 번째 신선인 능인(能仁)께 귀의하

옵고 현성(賢聖)의 위없는 법 연설하리라. 나고 죽는 긴 강에서 헤매고 있을 때 세존께서 못 중생들 구제하셨네.

[해석] 그때 세존께서는 곧 다음 계승을 읊으셨다.

최초의 부처님은 8만 4천 세 그다음 부처님은 7만 세였다. 비사파비계서는 6만 세였고 구루손여래 수명은 5만 세였다. 1만에 또 2만은 구나함모니여래의 수명이요 가섭여래 수명도 2만 세였는데 오직 나만은 수명이 1백 년이네.

##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2>

增壹阿含經卷第一 서품(序品)의 自歸能仁第七仙(자기능인제칠선)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석가모니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 사실 필자도 대장경을 구매해서 읽기 전에는 스님들의

거짓말에 속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운 종교학교(동국대 불교대학, 중앙승가대학 등)나 스님들이 차진 타칭 고승들이 그런 거짓말과 행동을 했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을 아는 순간 배신감과 허탈에 빠졌으나 지금은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흘러가서 자업자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럼 증일아함경의 서문 첫째 줄에 명시된 일곱 번째 부처를 말하는데, 나는 석가모니가 아닌 미륵 부처라는 뜻이었는데 확신을 한다.

왜냐하면 능엄경의 설법연대에서 보면 석가모니는 아함부의 증일아함경 보다 한참 뒤에 범하부의 범하경을 설하는데 범하경 방편품을 보면 석가모니가 불경을 방편으로 말하게 된 이유가 보인다.

석가모니가 출가하여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던 중 은몸이 기력이 탈진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람에게 발견되어 극진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간호 덕분에 기력을 회복하여 자신의 공부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을까? 하며 점검을 하게 되는 데 이른바 “스승 없이 깨우친다”는 독각의

석가모니가 성불했을까? 불교정도는 이뤄졌을까? 등등 여러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점검을 해보니 석가모니 자신은 성불과는 상관없이 미륵이라는 존재가 석가모니의 일생의 목표인 성불과 중생을 구원하는 존재가 동양의 작은 나라에 석가모니 자신이 입멸 후 3000년이나 긴 세월이 흐른 뒤에 온다는 것을 보고 석가모니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 사이에 21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그 사이에 석가모니는 죽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예 깊은 고민을 하다가 그레도 마음공부를 한지라 회생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 먹는다.

그 순간 마귀가 유혹하길 “당신이 부처니가 방편으로 말하라.”라고 석가모니 귀에 속삭인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암투되어 범하경 방편품에 제2에 쓰여있는 것이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잠시 잠시 혼자 있을 때마다 선정에 들어 미륵이 보살행을 하는 것부터 마지막 성불하기까지를 지켜본다.(다음호에 계속)\*

음식과 수행

속의 놀라운 효능

생명력이 강한 속은 암과 여성질환에 특효

6.25전쟁 당시, 전쟁포로가 된 우리 동포들은 북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쌀 한 톨,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해보려고 풀을 뜯어 먹었다. 그것도 인민군 감시병에게 들리면 사정없이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물레 뜯어 먹어야만 했다.

위 내용은 유행가 가사 그대로 철사 줄에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맨발로 절며 미아리 고개를 넘어 원산까지 한 달 동안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긴자 조희성님의 간증내용이다. 물론 조희성님께서 그 당시 북으로 끌려가신 후, 평양 서포 뒷동산에서 총살당하셨고 또 기적적으로 총탄이 옷 칼리를 뚫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살아남으셨기 때문에 위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긴자께서는 그때 풀을 뜯어 먹으면서 소가 풀을 맛있게 먹는 심정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고, 또 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속을 뜯어먹었더니 흐릿한 정신이 좀 맑아지면서 좋은 요기가 되었다고도 말씀하셨다.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불포화지방산과 산소의 결합을 억제해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다.

넷째, 위장기능을 강화해주는 효능이 있다. 속은 위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소화흡수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여 위장의 피로를 덜어주고 강하게 해준다.

다섯째, 섬유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속은 고혈압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다.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압을 낮춰준다.

여섯째, 간 기능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는데 속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흡연, 음주 등으로 약해진 간 기능을 보호해주며 기운을 북돋아 준다.

일곱째, 속은 여성 질환에 특효가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꾸준하게 섭취할 경우 각종 여성 질환을 치료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속을 이용하여 뜬을 뜨거나 좌환을 이용하면 웬만한 여성 질환은 치료할 수가 있는데 속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미국 워싱턴대학교의 연구진들은 2008년 10월 13일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 연구진들이 연구한 속은 개똥속이라는 품종임).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똥속은 기존의 항암제보다 암세포를 죽이는 데 12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암세포 안에 폭발을 설치하는 특수유전자(개똥속은) 암세포만을 선택해서 죽이는 데 아주 탁월하다(기존의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함께 죽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함).”

이처럼 속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음식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데 이 속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생명력이다. 히로시마 원폭 당시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내민 풀이 속이라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승우 기자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자신을 이겨야 구제주~

이 사람이 여러분도 다 구제주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다 이긴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구원의 자격이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기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을 이겨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움직여야죠?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제단 사정이 곧 내 사정이요, 이 제단 사정이 하나님의 사정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사이클이 하나님의 사이클하고 맞죠? 하나님의 마음의 사이클과 내 마음의 사이클이 맞아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죠?

구제주 말씀 중에서

만성적 허리통증, 디스크로 인한 요통을 훌훌 털어버리는 자세!!!

요추는 5개의 뼈로 구성, 25개의 뼈 사이에 추간판인 디스크가 있어서 충격에 완충작용을 하고 뼈 주위에는 강한 인대들 근육조직이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 척추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뼈, 디스크, 인대, 근육이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

1. 아랫배에 힘 주기 좋은 자세~

심장을 튼튼하게, 머리와 경추를 맑게, 동작: 엎드린 자세로 팔꿈치와 이마를 바닥에 대고, 들숨에 천천히 이마를 들어 날숨에 고개를 들어준다. 10초 유지. 5회.

2. 디스크에 좋은 자세~

심폐기능 확장, 척추강화, 감기, 천식 예방. 뇌질환에 효과적. 동작: ①번 자세에서 날숨에 팔꿈치를 쭉 펴고 가슴을 들어 고개를 뒤로 젖힌다. 배꼽과 치골은 바닥에 붙인다. 10초 유지. 5회.

3. 요통의 원인이 되는 허리와 골반의 뒤 틀림을 바로 잡아주는 자세~

동작: ②번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90도로 접는다. 들숨에 이마를 들어 날숨에 가슴을 펴고 하늘을 바라본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4. 옆구리 근살과 복부 지방 제거~

동작: ③번에 이어서 날숨에 고개를 돌려 왼쪽 뒤꿈치를 바라본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꿀팁: 발에 쥐가 날 때는 무릎을 쭉 펴



①



②



③



④

고 엄지발가락과 발목을 가슴 쪽으로 당겨 준다.\*

여담

화난 사람 침, 80명 살상은 과장돼

엘머 게이츠(Elmer R. Gates, 1859-1923)라는 미국 학자가 1시간 동안 화를 낸 사람의 타액에는 사람 80명 또는 80마리의 쥐를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가 생긴다는 실험을 했는데 이처럼 악한 마음은 무서운 결과를 일으키므로 절대 화를 내거나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글이나 말에 위 실험을 인용하곤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거짓이다.

화난 사람의 타액으로 80명 살상은 거짓말

엘머 교수는 1904년 “마음과 뇌의 관계 및 영향(The Rel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ind and Brain)”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환자의 숨을 얼음으로 냉각된 튜브에 통과시키자 침전물이 나타났는데, 화를 낸 환자로부터는 갈색 침전물, 극심한 슬픔의 경우에는 회색 침전물, 후회는 분홍색 침전물이 생겼고, 끔찍하고 악의적이며 우울한 감정에서

는 해로운 침전물이 생기고, 그 일부에서는 극도의 독성이 있으며, 기분 좋고 행복한 감정은 세포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침전물이 생긴다”

이상은 엘머 교수의 논문 일부를 번역한 것인데, 이 내용에는 화를 낸 사람의 타액이 극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암시는 있지만 그 침전물이 사람 또는 쥐의 생명을 해했다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1시간 동안 화를 낸 사람의 타액에는 사람 80명 또는 80마리의 쥐를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가 생긴다”라는 내용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이를 추적한 블로그 기사가 있어 축약하여 인용한다.

“엘머는 20세인 1879년 해당 실험을 하였지만 실험 데이터도 없고 실험을 재확인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행복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낸다는 당연한 듯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실험 결과이다. 그래서 당시에도 약간 왜곡된 사실과 과장된 판타지 같은 내용의 세미나나 강연이 만연해서 해명하려 다녔다는 뒷얘기도 있다. 적을 살상한 목적으로 독을 만들기 위해 화가 나있는 사람의 호흡을 액화시킨다는 이야기를 만화나 영화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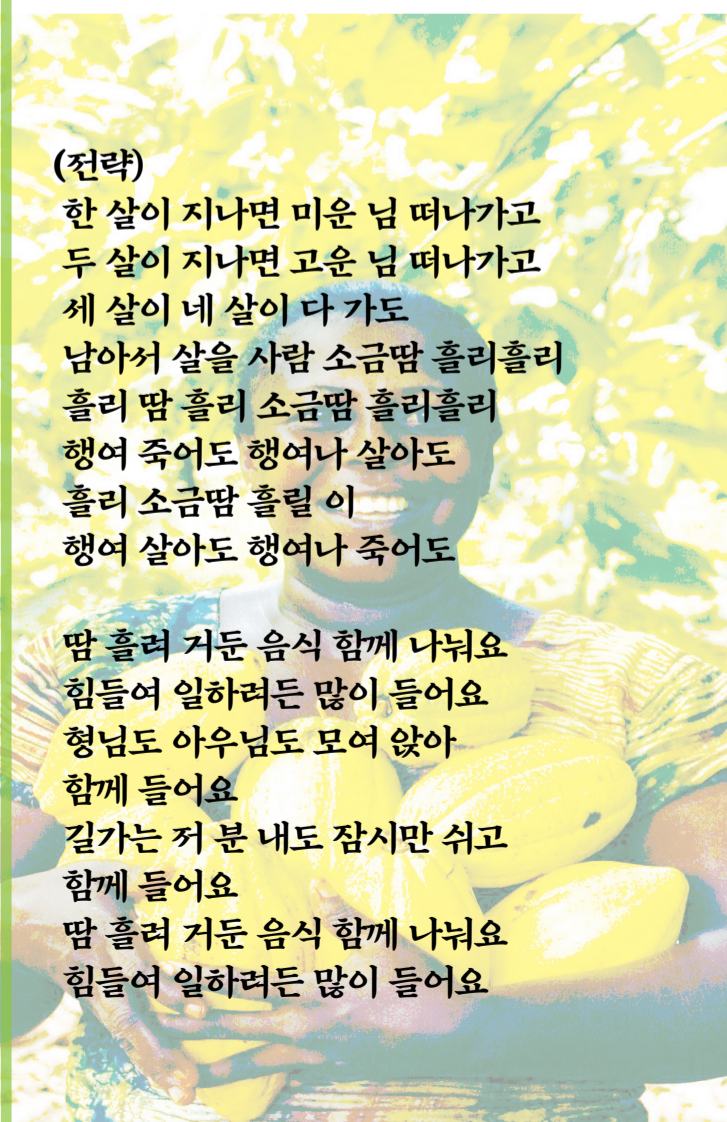
베스트셀러 작가의 무책임한 인용으로 확산돼

한동안 잠잠해 있던 이야기가 1937년 Napoleon Hill의 “Think and Grow Rich” 책에 이 내용을 실었고, 그 뒤 한참 뒤에 한국에도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인 John Maxwell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곧 한국에 번역이 되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명을 받아 분석적인 생각없이 그대로 여과없이 수 많은 블로그나 설교 책에 인용되면서, 하라(스토리텔러의 윤리관 “정확히 이종역 동작방면 승강장 5-2부분”에서 인용) 왜곡되었다고 한다.\*

시 한편 생각 한 줄

소금땀 흘리흘리/ 땀 흘려 거둔 음식

김민기



(전략)

한 살이 지나면 미운 님 떠나가고  
두 살이 지나면 고운 님 떠나가고  
세 살이 네 살이 다 가도  
남아서 살을 사람 소금땀 흘리흘리  
흘리 땀 흘리 소금땀 흘리흘리  
행여 죽어도 행어나 살아도  
흘리 소금땀 흘릴 이  
행여 살아도 행어나 죽어도

땀 흘려 거둔 음식 함께 나눠요  
힘들여 일하러든 많이 들어요  
형님도 아우님도 모여 앉아  
함께 들어요  
길가는 저분 내도 잠시만 쉬고  
함께 들어요  
땀 흘려 거둔 음식 함께 나눠요  
힘들여 일하러든 많이 들어요

며칠 전 지방신문에 대구 옆 경산시 외촌면 주민센터 앞에 어느 독지가 농부가 햅쌀 20가마를 밤에 물레 두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독지가는 지난 9년간 매년 연말이면 직접 농사지은 햅쌀을 주민센터 출입구에 ‘사랑의 쌀’이라는 쪽지 한 장과 함께 두고는 사라졌다. 땀 흘려 거둔 곡식으로 지은 밥을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농부의 따뜻한 손길이 내 마음에도 온기를 전해주는 듯했다. 이 기사의 바로 옆란에는 영양군의 한 민간단체가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집에 보일러 설치, 싱크대 및 장판과 벽지 교체, 외벽 보수 등 집안정비를 도운 기사가 실려 있고, 맨 뒷란에는 한 유명 아나운서가 종이학을 6천여 마리를 접어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에게 전해달라며 칠곡군에 전달한 기사가 실렸다.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병사들은 혼신을 다해 싸우며 전쟁고아들도 보살폈다고 전해진다. 어려운 시국에도 기쁨을 훈훈하게 하는 기사들이 지면을 채우는 것을 보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며칠 전 한 지인이 이사를 했는데 창문이 오래되어 외풍이 심하다고 해서 그 때에 가서 창문에 뽕뽕이를 붙이고 창문 틈새는 천테이프를 붙이고, 마지막으로 창문 전체를 두 장짜리 비닐로 막아드렸다. 예전엔 지금처럼 보온이 잘 되는 이중창이 아니라서 겨울이 되면 웬만한 집에서는 이런 공사를 하곤 했다. 공사를 하면서 예전엔 자다가도 한밤중에 아비지나 어머니가 일어나 연탄을 갈러 부엌으로 나가시던 추억도 떠올랐다. 지금도 연탄을 때는 이웃들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복지단

체가 연탄기부가 많이 줄어서 이 겨울 어떻게 날까 걱정이라고 한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시적으로 부자세를 도입한 나라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는 부진한데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경기는 과열 상태. 어려운 소시민이 많이 생긴 올해 불로소득을 많이 취득한 이들이 연말에 기부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또한 다른 선진국처럼 이런 시장에서 세금을 더욱 강화하는 세제개편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주위에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잘 내고 어려운 이웃도 잘 돕는 시민들이 많기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살아가기가 괜찮지 않나 생각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올10월 한달동안 자살한 이가 2150여명이라고 한다. 코로나로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주위의 이웃들이 조금씩이라도 신경을 써주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경주의 최부잣집이 10대를 넘도록 그 부를 유지한 것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해야 한다는 사상이 담긴 6가지 가훈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중 6번째 가훈이 ‘사랑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잘 보살펴 개개인을 다 건강하게 만들어 공동체 전체를 잘 유지하는 것이 부자의 책임이라는 가훈이다. 이 세상 부자들이 모두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실천한다면 참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꼭 부자가 아니라라도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강자가 약자를 잘 보살피어 사회는 잘 돌아간다. 아이들은 부모와 학교와 이웃의 어른들이 잘 보살피고 노약자들은 자식과 복지센터와 병원, 이웃의 젊은이들이 잘 보살피어 한다. 그래서 누구나 노인이 되고 병자와 장애인 이 되어도 걱정이 전혀 없

는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면 그것이 존치선정국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우선년부터 사랑100리는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 이나 내 몸처럼 여기고 잘 보살펴야 되겠다.

내가 아는 한 지인 부부는 두 분 모두 사람을 너무 믿다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서 밤낮 없이 일해야 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자식에게까지 그 빚을 넘겨주고 싶지는 않다고 하신다. 그 정도 되면 사람이라면 경계부 터하게되고 마음을 잘 열지 않을텐데 남편 분은 어느 날 지하철에서 집안이 해매는 한 청년을 데려와 집도 구해 주고 식사도 늘 같이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배은망덕하게도 이 청년은 물레 이분들 댁에 들어와 큰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두 분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여전히 많이 갖고 살아가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뭘까? 아마도 변치않는 양심을 가진 정직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닐까? 실제로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는 은유하고 이타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살맛도 생긴다. 또한 이런 양심을 지키는 마음 가난한 이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이롭담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 미운 정 고운 정이 든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의 뒷까지 소금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여 다시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동지다. 팔은 우리 몸에 독소도 해소하고 염증이 없게준다고 한다. 팔뚝을 많이 먹고 힘내서 오늘을 기쁨으로 맞이 길어지듯이 우리의 면역력도 자라고 희망도 속속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준경 / 대구수리재단 책임승사

# 이슬성신을 내려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사람뿐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이나 생명이 있는 모든 초목도 다 죽고 말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죽게 된 것이냐 하면 생명의 신이 되는 아담과 헤와의 하나님의 신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 6000년 걸려야 하나님께서 영생체를 만든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일단 쪼기 때문에 6000년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죽지 않는 영생체로 바꿔놓는 그 기간이 6000년인 것이옵니다. 그래서 옛세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이레되는 날 쉬신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의 말씀이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쓰여 있죠?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는 여호와와 입으로 모았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책을 읽든 읽어도 그 성경의 진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 가운데 짝이 없는 말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짝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모르고 신학박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안 읽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있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씀도 알아야, 몰라요? 시편 82편 6절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지존자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옛날 구약성경 시편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쓰여 있는데도 예수가 그것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인고로 자기가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을 했던 거죠?

##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안 믿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어, 안 믿었어?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관광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마다 어떻게 해서 예수의 본거지가 되는 이스라엘에서 회교를 찾아볼 수 없을까, 하고서 목사나 신학박사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나 거기에 예수는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왜 없다는 말은 못 하는 거예요. 왜 없는 거를 알아야? 모르니까 말을 못 해요.

예수가 누구 자식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 몰라? 1월 6일이 예수의 생일이라는 걸 유대인들은 다 알죠? 예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 기독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을까, 안 비웃을까? 비웃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전부 다 멸시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아요. 미국에 가서 봐도 역시 유대인들은 예수교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예수 잡놈을 믿으니까. 예수가 잡놈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죠? 예수가 로마 병정 판텔라의 아들이



구세주 조희성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린다

라는 걸 알아, 몰라? 그걸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똥상놈의 새끼라고 한국 사람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개똥상놈을 사람처럼 여길까, 안 여길까? 안 여길까? 미개한 나라, 우리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좀 미개 국가인고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은 미개하기 때문에 그래, 개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 예수의 실존체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 예수 스스로 구세주가 아니라고 해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면 자세한 말씀이 정확하게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이 쓰여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자기는 성령을 받은 자도 아니고, 성령에 힘입어 자기가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

을 자백한 거죠? 예수가 한 말이예요. 아 시겠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30절 "내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 이런 말씀이 쓰여 있죠? 이것도 예수가 한 말이예요. 자기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가 임금을 지칭한 것이 누군가 하면 이 세상 구세주를 말한 거예요. 이 세상 구세주가 이 세상 임금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은 내 뒤에 오신다 이겁니다. 예수 다음에 온다는 얘기도?

## 예수는 이슬을 못 내렸으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

또한 모세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3장 22절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는 자기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 게

뭐냐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렸어, 안 내렸어?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려면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모세와 같은 이슬 같은 성령을 내려, 안 내려? 이슬 같은 성령을 내리죠? 이슬 같은 만나를 내리죠? 이슬 같은 만나를 내리는 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 구세주는 한국에서 출현한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한국 땅에 나온다고 그랬어, 외국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한국 땅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한국 땅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이 불경에도 쓰여 있죠? 계두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생미륵불이 나타난다고 불경에 쓰여 있죠? 계두왕이 어느 나라 왕이요? 신라 나라 왕이요? 신라 왕인 계두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생미륵불이 나온다고 불경에 쓰여 있으니까 분명히 계두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라인고로 신라가 지금도 한국이요? 한국에서 이 생미륵불이 나타난다고 말을 했어요.

또한 성경에는 호세아서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긴 자요?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 내린다는 약속을 했죠? 이슬이 되어 내린다는 저 이긴자가 백합화 같이 핀다고 그랬죠? 백합화가 무슨 뜻인지 전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찬송가에는 그 뜻이 기록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구주는 산곡에 백합 명량한 새벽

별 만인 위에 뛰어나시는 줄세" 구세주는 백합화라고 그랬죠?

## 새벽별을 뜻하는 이름으로 구세주 출현한다

또 명량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밝은 명(明)자니까 밝은 새벽별이라 이 소리죠? 밝은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세주란 뜻이요? 만인 위에 뛰어나는 줄세 그랬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이슬성신을 내리는 것을 보니까 뛰어나는 주님이야, 졸자 주님이야? 뛰어나는 주님이요? 찬송가 가사에 구세주는 백합화 밝은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었지만 찬송가 가사에는 표현이 된 거죠? 구세주는 이슬성신을 내리는 이긴 자가 백합화 같이 핀다고 그랬죠?

또한 새벽별은 밝은 별이요? 새벽별은 밝은 별인데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8절로부터 28절에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긴자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죠? 새벽별이 밝은 별이요? 그러니까 밝은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긴자 구세주라는 얘기도? 그래, 안 그래요?

이긴자는 이슬성신을 내리는 자요 이슬성신을 내리는 이긴자가 구세주라고 호세아서 1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대로 믿노라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아, 몰라? 이걸 모르고 있으니 저들은 구세주를 찾을 길이 있어, 없어? 구세주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아, 몰라? 모르고 있죠?\*

2001년 1월 13일자 말씀 중에서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3장 야곱의 하나님》 (2)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다

## (2)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다

이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달려온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을 찾아오게 된 곡절을 말했습니다. 라반은 이 말을 듣고, "자네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한 달가량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보아 주면서 있으니까 라반이 하루는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무리 나의 친척이라도 공으로만 일할 수 없지 않나? 자네가 일한 만큼의 삯을 줄 테니 서슴지 말고 자네 생각을 말하라."

야곱은 마음속으로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 7년이 되면 라헬에게 장가들게 해 주십시오"

- 창세기 29장
-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네가 비록 내 생일이야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나에게는 서른일곱 살이 되도록 시집가지 못한 큰딸 레아 있는데, 꼭 둘째 라헬하고 같이 살고 싶은가? 라헬은 올해 서른한 살인데, 야곱은 몇 살이지?"

"예, 선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당부하신 말씀이 생각나 스무 살 정도 낮추어서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나이 일흔일곱 살이었지만, 브엘세바 집에서 떠나올 적에 부모님께서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데 큰 아이는 30대 초반이요, 둘째 아이는 3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여기 와서 보니 신동하게도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밭 단아랍까지 2천 리나 먼 곳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환하게 내다보시고 야곱의 부모님께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그럼 라헬보다 스물 여섯 살을 더 먹었구나! 내가 좋다는데 아예 줄 수 없지.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자네에게 시집보내는 편이 더 마음 든든하겠다. 자,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나자."라고 기꺼이 승낙하였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열심히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습니다. 말이 봉사지 머슴살이와 같은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하는 라

헬을 위하여서라면 7년이란 세월도 그리 길어 보이지 않았고 잠깐의 세월이었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외삼촌, 약속한 대로 7년이 다 왔습니다. 이제 라헬에게 장가들게 해주십시오"

그러하여 라반은 맛있는 술과 음식을 차려 야곱과 라헬의 혼인 잔치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허너 실버를 떨어 주었습니다. 어둠이 덮이고 밤이 되어 서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라반은 라헬 대신에 그의 언니 레아를 신부로 차려 입혀서 야곱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의 결혼풍습으로 신랑이 베일로 가린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밤을 지낸 후, 날이 밝아 서야 그때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sup>1</sup>

1 한민족과 이스라엘민족은 원래 동족으로 풍속이 매우 닮아있습니다. 예컨대 결혼풍속을 보면 양가의 부모들만이 신랑, 신부의 손을 보고 당사자들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심지어 신랑, 신부가 맞절하는 교배례 의식을 치를 때에도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금기시하였습니다.



신부가 바뀐 것을 외삼촌에게 따지는 야곱 (창 29:25)

이튿날 아침 야곱은 라헬과 결혼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시집온 여자는 아리따운 라헬이 아니라 약간 못생기고 시력도 좋지 않은 큰딸 레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야곱은 자기 외삼촌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그 길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천막으로 부리나게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외삼촌, 이런 속임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은 라헬 때문이지, 레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삼촌께서는 어젯밤 큰딸 레아를 나한테 보내셨으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곱아, 진정하고 내 말을 좀 들어봐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신부의 얼굴에 면사포를 씌우고 혼례를 치르고 첫날밤 합방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라. 이 지방의 풍속으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만약 동생이 먼저 시집가게 되면 아무도 큰딸 레아에게 장가들려고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어찌 영영 시집가지 못하는 레아를 곁에 두고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있겠는가? 내 입장도 생각해 주렴."

"하지만 저는 라헬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라헬을 원한다면, 자네가 다시 7년 동안 일한다면 라헬을 자네에게 주겠다." 하고 라반이 말했습니다. 두 딸을 취하게 되는 야곱은 딸 하나에 각각 7년씩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의 능력만 있으면 여러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가 통용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 말씀대로 7년 동안 더 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7년 후에 라헬과 결혼식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살게 하여주세요."

"그렇게 하라. 대신에 먼저 결혼한 큰딸 레아를 위하여 초례<sup>2</sup> 기간 7일을 채우라. 그런 연후에 라헬을 나에게 주겠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자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 빌하를 딸라헬의 몸종으로 팔려 보냈습니다. 빌하는 노아의 장자 셈에서 아브라함, 셀라, 에벨로 이어지는 혈통 가운데, 에벨의 10대손으로 추정되며, 장차 야곱의 장자상속을 이어받을 '단'을 낳게끔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빌하는 라헬의 몸종으로

2 초례: 전통적으로 치르는 혼례식

서 비록 단을 낳은 생모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 라헬을 대신하였기에, 단은 라헬의 품에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자랐고 젖을 먹이는 생모 빌하는 유모라고 호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따라 태어난 '단'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는데, 그 뜻은 '심판자'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셀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듯이 '단은 온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 되고 그녀에게 열왕이 나라리"라는 하나님의 축복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듯이, "야곱으로부터 단을 얻은 라헬은 민족의 어머니 되고 그녀의 아들 단의 지손에서 구세주 하나님이 나오시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야곱과 라헬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 안젤라

3 에벨의 장자 벨렉은 바벨탑 사건 이후 아브라함을 따라 우르로 내려갔지만, 또 다른 에벨의 자손들은 니느웨에서 400킬로미터 서쪽에 있는 하란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란 근방의 밧단아람에서 정착하던 에벨의 심대손 '빌하'를 브두엘의 아들이 되는 것의 여중으로 들어가게끔 행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빌하'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어머니요,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장자상속을 물려받은 '단'의 어머니입니다. 빌하가 낳은 아들 '단'의 지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출현할 것을 창세기 49장 16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단의 혈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아'가 낳은 유다와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주목하는 시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 Only when emitting Holy Dew Spirit, One can be a Prophet like Moses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The world is a mortal one. Not only humans but also all things that live die. Because from the moment Adam God and Eve God, who are the Gods of life, were taken prisoner by the devil, the world became a world of death.

**It takes 6000 years for God to make all things immortal forms**

Since God lost to the devil once, he had to wait 6,000 years. It takes 6000 years for God to change mortal existences into immortal ones. So God said that he works for 6days and takes a rest on the 7th day.

Only one matching word is that of God according to Isaiah 34:16. It says, "Look in the scroll of the LORD and read: None of these will be missing, not one will lack her mate. For it is his mouth that has given the order, and his Spirit will gather them together." So no matter how Christians read the Bible, they do not know the true meaning of the Bible. All the words of the Bible are those of God, the word of God has all its matching words. However, there are

many words which do not have their matching word among the words of the Bible. So it is said that a word without a matching word is not that of God. But Christians do not know this. Even the pastors don't know it, and the doctors of theology don't know it either.

**Jesus did not read the verses, "Humans are the sons of God."**

He did not know which one is the word of God in the Bible. Also he did not know all humans are the children of God. According to Psalm 82:6, "You are the gods, the sons of the Most High. The Most High is God. It indicates, "You are all sons of God." according to Psalm of the Old Testament. As Jesus did not know the fact, he said that he was the only son of God.

**Jews don't believe in Jesus as their Savior**

Jews don't believe in Jesus as their Savior. Sightseeing to Israel for a pilgrimage, the Christians find there are no Churches in Israel. Those who have been to Israel ask the pastors and the theologians why they could not find a church in Israel, the home of Jesus.

But they cannot answer why there is no church there. The Jews know whose child Jesus is. They know Jesus' birthday is January 6th. Christianity deceives people in saying that Jesus' birthday is on December 25th and observe the day as Christmas. So the Jews laugh, despise Christians, and do not regard them as humans. Also the Jews in America do not regard Christians as humans, either.

Because they believe in Jesus, a bastard. They know Jesus is a bastard. Do they know that Jesus is the son of Pantella, a Roman soldier? As they know, they regard Christians as low fellows. As Korea is a primitive one, there are many Christians there. Because they are not enlightened, they don't know who Jesus really is, they believe in Jesus.

**The word of the Bible proves that Jesus is not the Savior**

Contemplating the word of the Bible minutely, there are precise words. According to Matthew 12:28, Jesus said "If I drive out demons by the Spirit of God,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He confessed driving

demons by not the Holy Spirit but demon.

Also, in accordance with John 14:30, Jesus said, "for the king of this world is coming after me." Jesus indicated the king as the Savior. That is, he means the Savior comes after him.

**Jesus is not a prophet like Moses because he did not emit the dew**

Act 3:22-23 says, "For Moses said, 'The Lord your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from among your own people; you must listen to everything he tells you. Anyone who does not listen to him will be completely cut off from among his people.'" Jesus spoke, "he is a prophet like Moses."

Jesus is not a prophet like Moses because he did not pour the dew, the heavenly manna, to his people. Only by emitting the manna like the dew, one can become a prophet like Moses. In order to be a prophet like Moses, one should pour the manna like the dew. Today, This man emits the Holy Dew Spirit like Moses did. The man who pours the manna like the dew is a prophet like Moses. We know Jesus is not a prophet like Moses.

**The Savior comes from Korea**

There is a saying that a prophet like Moses comes from Korea accordi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According to the Buddhist scripture, the Maitreya Buddha appears from a country where King Gyedoo rules. King Gyedoo is a king of Silla dynasty. Silla is Korea now. The Buddhist scripture says the Maitreya Buddha emerges from Korea.

Hosea14:5 tells, "I will be like the dew to Israel; he will blossom like a lily." Israel is Hebrew meaning the Victor. God promised that he would become the Dew to Israel, the Victor that pours the dew will blossom like a lily. People do not know what a lily means. A lyric of a hymn says, "The Savior is a lily in a mountain valley, he is outstanding over all humans."

**The Savior emerges with a name meaning the Morning Star**

Also the Savior is the bright morning star. It means that the man who has a name of the Bright Star is the Savior. The man who is outstanding over all humans is the Savior. The man who can control winds and clouds and emits

the Holy Dew Spirit is the ultimated Savior. The lyric of the hymn says that the Savior is a lily and a man with a name with the bright morning star. This expression is not in the Bible, it is in the lyric in a hymn. The Savior is expressed as follows. The Victor who radiates the Holy Dew Spirit blossom like a lily.

Also, the morning star is a bright one. Revelation 2:26-28 says "To him who overcomes and does my will to the end, I will give authority over the nations. He will rule them with an iron scepter; he will dash them to pieces like pottery"-I will also give him the morning star."

God says, "He will give the morning star to the Victor." The morning star means the bright star. It means the man who has a name of the bright star is the Victor Savior. The Victor is the man who pours the Holy Dew Spirit, the Victor who emits the Holy Dew Spirit is the Savior according to Hosea 14:5.

But as Christians who believe the Bible do not know the fact, there is no way to find the Savior. Though the Savior appears and does the work of salvation, they do not know it.\*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rist on January.13th, 2001.

Translation: Angela Kim

지난 두 번의 글에 이어 도덕경 15장 약동섭천(若冬涉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여정에서 물을 찾아 얼음 위를 헤매던 주인공이 얼음과 함께 녹아 계곡물에 던져진 순간 통나무가 되었고 이후 계곡과 하나가 되어가면서 흙탕물로 변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순간 인두검을 벗고 통나무가 되는 장면이 돈오(頓悟)요, 이후 점점 개체성을 잃어가면서 흙탕물로 변하는 과정을 점수(漸修)라 했습니다. 여기서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단박에 깨친다.’는 선종(禪宗) 특유의 돈오(頓悟)에 대한 초기 기록은 혜능(慧能)의 육조단경『六祖壇經』 제7장 남동북점장(南頓北漸章)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이 수심경(修心訣)을 통해 ‘단박에 깨치고 다시 서서히 닦는다.’는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실천 후 정론으로 여겨지다가, 1981년 성철(性徹) 스님이 『선문정로(禪門正路)란 저술을 통해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다.’는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장이 옳을까요.

첫째로 논의들이 제기된 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981년을 기점으로 왜 갑자기 돈오돈수가 다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제단 분열이라면 쉽게 짐작하겠지요. 바로 이기신 하나님의 등장, 이긴자의 완성과 그 시기가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근본적으로 내 안의 하나님의 각성, 내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따라서 이기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1980년 이전까지는 깨달음, 돈오(頓悟) 또한 온전한 것일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깨달음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내 마귀를 제거하기 위해 점수(漸修), 더 닦아야 합니다. 해서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돈오점수(頓悟漸修)의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980년, 완성의 하나님, 이기

자가 등장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라는 마귀를 완전히 죽이고 온전한 돈오(頓悟), 완성의 깨달음이 등장했으니 더 닦을 것이 없습니다. 해서 ‘한 순간 닦는다.’는 돈오(頓悟)가 된 것입니다. 한 순간 온전히 깨닫고, 한순간 홀연히 닦을 뿐입니다. 밑에서 해와 이긴자가 “네가 완성자가 되었다.”고 한 선언이 바로 진정한 돈오(頓悟)의 선언이며 나아가 “네가 정하면 정하여질 것이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라 하신 것이 완성된 돈오(頓悟)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죄업까지 한 순간에 멸(滅)하는 온전한 돈오(頓悟)의 등장입니다.

완성의 이기신 하나님의 출현 자체가 돈오돈수(頓悟頓修)입니다. 점수(漸修)가 필요한 건 마귀 욕을 부수고 나온 이기신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 시대의 얘기일 뿐입니다. 돈오돈수(頓悟頓修)는 성철 스님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완성의 하나님의 등장을 영적으로 감지한 그가 더 닦을 것이 없는 온전한 깨달음이 이 세상에 나왔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왜 이긴자가 등장한 80년을 기점으로 돈오돈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는지는, 이긴자를 만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또한 이는 ‘말세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누가 18:8)는 구절과도 짝이 맞습니다. 말세에 이르기까지는 이 땅에 믿음 자체가 없다 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엡2:8)라 했으니 말세에 등장하는 그 믿음, 인간을 구원하는 그 믿음이 죄인 파우의 믿는 마음일 수 없습니다. 엄청난 자기당착, 자기모순입니다. 믿음은 그 자신이 구원자이며 마지막 때에야 비로소 등장하는 완성의 하나님의 신 자체입니다.

마귀세상을 끝낼 믿음과 마찬가지로 돈오(頓悟) 또한 마지막 때에야 등장하는

것이지요. 돈오(頓悟)도 믿음도 1980년 이후에야 비로소 존재합니다.

둘째, 돈오(頓悟)나 점수(漸修)는 궁극적으로는 수행 방법, 닦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마귀신의 등장과 소멸에 대한 얘기이며 영적 ‘존재’의 등장과 소멸에 관한 담론(談論)입니다.

인간 자체가 마귀 욕에 갇힌 하나님,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마귀의 이중구조체입니다.

따라서 얘기 보를 찢고 나오는 이야기처럼 순간 등장하는 하나님이 순간의 깨달음, 오(悟)로 묘사된 것이며, 반면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나라는 마귀는 부수고 쓸어 없애야 하는 존재이기에 닦을 수(修)로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우선 오(悟)는 파자(破子)로 볼 때 완성(口)의 구세주 하나님(五)이 내(吾)가 된 마음(心)이니 하나님 나, 자성(自性) 자체를 상징합니다. 오(悟)는 깨닫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깨달음을 자꾸 인간 나 자신에게 속한 그 무엇인 양 나의 깨달음, 인간의 깨달음으로 환원시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인간 내가 짊어지기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나의 것이라는 착각은 나를 단일한 존재라 여기는 착각, ‘나는 나 자신밖에 없다.’는 단견(短見)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존재, 나의 주체성이 단일한 하나님은 이 착각이아말로 ‘나라는 의식’의 근거이며 마귀의 신이 내 무의식에 숨어 사주한 미망(迷妄)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주체성은 단일하지

## 꿈에 대하여...〈9〉

### 부제: 도덕경과 돈오점수(頓悟漸修)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마귀 신이 주장하는 마귀 ‘나’일 뿐, 하나님 ‘나’ 또한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마귀 나’, 마귀 욕에 갇힌 ‘하나님 나’, 최소한 둘입니다. 비유하자면 회색으로만 보이는 TV화면이 실은 흑과 백의 두 장면이 빠르게 반복되어 그리 보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엄연히 백과 흑, 두 색이지만 회색 하나의 색만 있는 것처럼 착각할 뿐입니다.

소위 깨닫는다 할 때 마귀 나, 의식의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마귀 무지의 본체, 무지의 당사자일 뿐입니다. ‘깨달음’이 나를 제치고, 나라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는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를 뚫고 아는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알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해서 선승(禪僧)들도 깨달음의 순간을 묘사할 때 본능적으로 ‘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던 것이지요.

모르는 나도 나요, 아는 나도 나입니다. 마귀도 나요, 하나님도 나입니다. 해서 범부중생들은 그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내 것인 양 또다시 착각할 뿐입니다. 나는 단지 무지의 존재라는 것을 사무치도록 지적할 때, 비로소 깨달음이 등장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지눌(知訥)이 말한 ‘단지불회 시즉견성(但知不會 是即見性)’입니다. 내가 단지 모르는 자, 무지의 존재, 즉 마귀라는 것을 사무치게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신이 등장해 견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깨달음, 오(悟)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마귀 욕을 뚫고 등장한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 자신의 각성입니다.

점수(漸修)의 수(修) 또한 궁극적으로는 오(悟)와 마찬가지로 ‘존재’입니다. 파자로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三)을 가두고 있는 이중의 인두검(一)이니 수(修) 자체가 마귀 욕, 마귀 신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칠 복(七)이 얹혀있으니 ‘하느님을 가두고 있는 마귀 욕을 쳐서 부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修)는 글자 자체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마귀신의 존재이며 또한 그 마귀를 두들겨 부술 것에 대한 서사(敘事)입니다. 수(修) 또한 본질적으로는 닦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며 주체입니다. 닦아 없애야 할 나라는 마귀가 수(修)입니다.

오(悟)와 수(修)는 근본적으로는 존재이며, 주체이며 놈(物)입니다.

이렇듯 오(悟) 수(修)를 ‘존재’의 등장과 소멸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면 돈오(頓悟)나 점수(漸修)나 하는 돈점(頓漸)의 문제는 더 이상 근본적인 문제일 수 없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과 마귀신의 상황과 근거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뿐입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의 ‘만사지 식일완(萬事知 食一碗)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하면 ‘밥 한 그릇을 먹는 것에 만물의 이치가 다 담겨있다.’ 정도가 될 테지요. 이 말씀은 인간이 어찌어찌 해서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오의(奧義)를 알 수 없습니다. ‘만사지(萬事知)’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오(悟)와 마찬가지로 만사지(萬事知) 또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만사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아는 존재, 한울님 자신이 만사지(萬事知)입니다.

그리되면 ‘만사지 식일완(萬事知 食一碗)’에서 만사지(萬事知)가 주어, 식(食)은 동사, 일완(一碗)은 목적어가 되어 ‘한울

님이 밥 한 그릇을 먹는다.’로 풀립니다. ‘만사지(萬事知) 식일완(食一碗)’은 ‘한울님이 밥 한 그릇을 똑딱 비우시는’ 장면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받을 먹는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밥 한 그릇을 먹을 때에 인간 나, 마귀 내가 날뿔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한울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 대신(代身) 드러주시게 되면, 거기에 맡김의 이치, 하나님이 마귀 나를 대신(代身)해서 ‘나’를 해 주시는 맡김의 도리가 구현되니, 밥 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천식천(以天食天),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시는 장면입니다. 나도 하나님, 밥도 하나님입니다.

‘만사지 식일완(萬事知 食一碗)’이 이천식천(以天食天)이며 돈오(頓悟)이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代身)해 나를 해 주시는 맡김입니다.

돈오(頓悟)든 점수(漸修)든 만사지(萬事知)이든, 내가 닦고 내가 깨닫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돈오(頓悟)도 만사지(萬事知)도 믿음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신의 등장이며 하나님이 주체가 된 하나님 스스로의 진행입니다. 인간 내가 무언가를 새로이 알게 되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뚫고 등장한 것뿐입니다. 앞의 주체가 나라고 여기는 한 무지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지는 앞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줄 때 그 존재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아는 자 하나님이요, 모르는 자 마귀입니다. 빛이 어둠 될 리 없고, 어둠이 빛 될 리 없습니다.

아는 자 영원 전부터 영원무궁토록 알고, 모르는 자 영원 전부터 영원무궁토록 모릅니다.\*

제20편 - 제3신앙촌시대(제7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82회)

제20편  
제3신앙촌 시대(제7부)  
一. 구세주 출현에 성공한 영모님  
二. 영모님이 증거하시는 구세주는 조희성님  
三. 승리제단의 주인은 조희성님  
四. 嗚呼悲哉聖壽何短(오호비제성수하단);  
말운론  
五. 오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으신가!

五. 오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으신가!

3) 박태선하나님 화천(化天)하시다!

세상에서 영모님 이상 불쌍한 존재는 없으시다. 영모님이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 가족을 다 희생시켰다”라고 종종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영모님 이상 불쌍한 존재는 없다. 처자식들을 인류를 위하여 다 희생시키신 분이다. 세상에서는 영모님의 자제들에 대해서 그 방탕한 행동을 나무라고 조롱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들도 다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물들이었다.

영모님이 처음 하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가 1954년부터이다. 그때부터 영모님께서 화천하신 1990년까지 영모님께서는 거의 항상 24시간 교인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 이들은 집에 와봐야 할 벌일 공간이 없었다. 교인들로 북적거리니 아버지는 자식들과 눈도 마주칠 수가 없었다. 이들은 자연히 밖으로 나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밤중에 들어와봐도 여전히 교인들이 북적대니 방 한편 구석에서 아무렇게나 잠을 자곤 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대로 나가버린다. 한참 부모 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재물을 떨 나이에 이들은 이렇게 떠돌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방랑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는가? 영모님은 오직 하늘의 뜻을 이루시

려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이다. 격암 남사고 선생은 이와 같은 기막힌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

『歌辭總論(가사총론)』

堯舜亦不肖子息요순역불초자식 未聖豈無放蕩兒只말성기무방탕아자 世人莫睹不荒流說세인막도불황유세...

“요순같은 성군도 불초한 자식이 있었거든 말세의 성군도 어찌 방탕한 자식이 없었겠는가. 세상사람들이 다 허황된 유언비어를 말하고 있다.”

영모님은 하늘의 사명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가족들을 다 희생시켰다. 그리고 영모님은 당신의 생명도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셨다. 영모님이 해산의 수고 끝에 낳아 출현시킨 영적 아들인 구세주께서는 영모님에게 승리제단으로 오실 것을 여러 번 간곡하게 청하셨으나 그때마다 영모님은 “그렇게 하마” 하고 말씀을 하시고도 끝내 오지 않으셨다. 건강도 좋지 않은 가운데 교인들과 일일이 새끼손가락을 거시면서 “우리 삼천년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같이 살자”라고 하시던 영모님은 삼천년성(승리제단에 계시는 구세주)을 바라다만 보시다가 세상을 하직하시고 마신다. 인류를 영생체로 구원시킬 구세주인 삼천년성을 세워 놓으시고 영모님 당신은 희생을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세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려고 광야생활 40년을 해매던 끝에 결국 모세는 모압평지 느보산에 올라 멀리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면서 숨을 거두



화천(化天)하시기 전의 영모님 모습

고만 것이다. 이때의 모세의 나이는 120 세였다.(신명기 34:1 이하)

그토록 삼천년성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시던 영모님은 기장신앙촌에서 삼천년성을 바라보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 광야의 외치는 소리의 사명자로 1950년 봄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시작한 영모님은 1990년 2월 7일 40년 동안의 그 파란만장한 광야생활을 청산하고 화천하신 것이다.

박태선 영모님이 숨을 거두실 때의 장면은 너무나도 서글프고 쓸쓸했다. 산소 마스크를 쓰시고 사경을 헤매시는 영모님 곁에는 사모님도 없고 자녀들도 없었

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영모님은 그 파란만장한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신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운명하려는 영모님 곁에는 영모님의 조카딸인 박모 여인이 혼자서 지켜보고 있었다. 영모님의 숨결이 심장이 멎는다. 급히 엠블런스를 불렀다. 엠블런스가 와서 영모님을 신고 병원으로 긴급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영모님은 엠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시던 중에 숨을 거두시고 만다. 아아! 정말 성인의 수명이 어찌 이따지도 짧단 말인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론을 그토록 실감나게 증거하던 영모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未運論(말운론)』

嗚呼悲哉聖壽何短오호비제성수하단 林出之人怨無心.임출지인원무심.

“오호 슬프구나!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도 짧으신가! 두 감람나무로 출현하신 분이 죽는구나!”

주해: 怨無心(원무심)은 怨(원)자에서 無心(무심)즉 마음이 없다고 하였으니 怨(원)자에서 마음을 없애면(無心) 죽을 死(사)지만 남는다.

450년전 남사고(南師古)선생은 위와같은 말을 예언해 놓았다. 남사고 선생은 박태선님이 하늘의 엄청난 사명을 받아 나타나 날임을 구체적으로 많이 예언을 해 놓았다. 박태선님의 함자와 전도관이라는 종교 명칭, 그리고 신앙촌이라는 신앙공동체의 명칭 등 박태선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예언을 해놓으신 것이다. 그리고는 “修道先出容天村수도선출용천박을 世人不知세인부지모르거든 天崩地拆素沙立천봉지타삭소사립을 十勝人심승인에게 問疑문의하소” 라고 했다. “도를 닦아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먼저 나타난 박태선님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거든 무너진 하늘나라를 소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심승인에게 물어보시오”라는 예언이다.

박태선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사비비 교주로 매도만 할 것을 알고 미리 경고를 하면서 이분 박태선님을 반드시 알고 따라야 할 것을 예언하신 말이다.

이와 같은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72세 밖에 못 사시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그래서 격암선생은 “아!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이렇게도 짧단 말인가!” 라고

필자의 호소

전도관의 신앙의 동지 형제 자매 여러분! 필자가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매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모님은 육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다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아십니까? 또 영모님은 여러분들을 믿지를 못하시어 쇼를 하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영모님의 영의 말씀의 참뜻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쇼를 해왔는데 앞으로 계속 쇼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81.12.28축복일)”

“내가 바보놀음을 하고 나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82.4.11)”

“다 체크 해놓고 인간놀음을 한 것이다. 다 체크하고 있는 것이다.(81.10.12)”

왜 영모님은 전도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쇼를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전도관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관 사람들을 왜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영모님이 전도관 사람들을 생수 마시고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신 이유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영모님의 참뜻을 잘 깨달아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모님을 따라 신앙의 길을 같이 걸었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청을 드립니다.\*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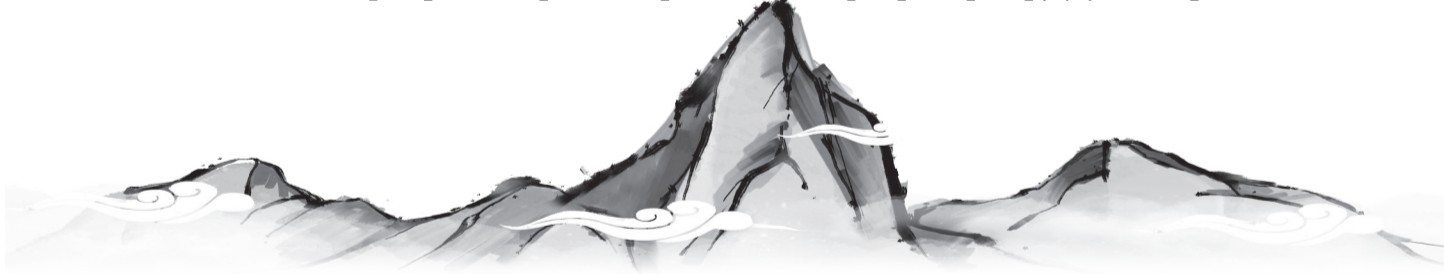
격암유록 新 해설  
제92회

出將論(출장론)

牛蠶之村見不牛 우성지촌견불우로 人言一丈八寸 인언일대척팔촌을 恨心 한심하다  
草露人生弓乙村 초로인생궁을촌을 呼天村 호천촌을 先壽後 先심후에 呼母村 호모촌을 更問問母하소 父母村부모촌을 모르거든 三人一夕雙弓道 삼인일석쌍궁도에 至誠感天天神化 지성감천천신화로 武陵桃源 무릉도원차보자자 修道先出容天村 수도선출용천박에 天崩地拆素沙立 천봉지타삭소사립을 靑鶴龜牛腹洞 청학복처우복동이 三峰山下半月有 삼봉산하반월우로 深藏窟曲囊中世界 심장굴곡낭중세계 靈泉水 영천수가 恒流 恒류로다

소 울음소리 들리는 마을에서 소는 볼 수 없고 신천촌(信天村)을 모르니 한심하다. 초로인생들이여 궁을촌을 모르거든 호천촌(呼天村)=하나님을 부르는 마을을 먼저 찾아온 후에 호모촌(呼母村)=엄마를 부르는 마을을 다시 물어보소 소 울음소리, 소는 영적인 의미이다. 천마지우(天馬地牛)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엄마로서 역할을 한다. 그 엄마를 부르는 소리와 그분의 진리 말씀을 말한다. 부모촌(父母村)천지의 아버지가 계

감로해인으로 죽음에서 영생을 얻으니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시는 마음을 모르거든 심승의 도를 지성 감천(至誠感天)으로 닦아 사람이 하나님(天神)으로 변화되는 무릉도원선경(武陵桃源 仙境)을 찾아보소 삼인일석(三人一夕)은 닦을 수(修) 자의 파자이며 쌍궁(雙弓)은 궁궁(弓弓)을 말하며 심승이 된다. 심승(十勝=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도를 닦아 먼저 나온 분은 하늘을 닦은 박(朴)씨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소사(素沙)에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의미의 제단을 세우게 되느니라. 청학 즉 신선이 날고 드는 우복동(牛腹洞=+)은 삼봉산 아래 반달 즉 마음 심(心)자 에 있고 마음속 깊이 감추어져 있는 굴곡이 진 주머니 속의 세계와 같은 곳에서 신령한 샘물이 항상 흘러나오느니라.

靑樹古里碧山新村 청사고리벽산신촌 非山非野十勝處 비산비야십승처라 海印龍宮閉日月 해인룡궁일월이요 木人新幕別乾坤 목인신막별건곤을 風驅惡疾雲中去 풍구악질운중거요 雨洗冤魂消外消 우세원혼소외소라 別有天地非人間 별유천지비인간이요 武陵桃源紫霞島 무릉도원자하도를

書牛鰾溪活命水 화우고계활명수는 牛姓村 우성촌에 隱潛 은잠하니 水昇火降繩砂法 수승화강은묘법을 無智者 무지자가엇지알고 天牛耕田田理 천우경전전전리로 寺耨七斗作農 사답칠두작농일세 巨彌 거미하다 牛姓村 우성촌의 一心修道 일심수도심었던이 甘露如雨循環裏 감로여우순환리에 日就月將結實 일취월장결실하니

활터에 세워진 푸른 정자가 있는 옛 마을이 푸른 산속의 신촌(新村=새하늘 새 땅=神村)으로 되었으니 바로 산도 들도 아닌 비산비야 십승처로다. 감로 해인이 가득한 용궁(龍宮=정도령이 좌정한 곳)은 한가로운 밝게 빛나고(日月=明) 목인(木人)이 거하시는 신의 장막(新幕=神幕)은 별천지라 악한 질병을 바람으로 몰아 구름 속으로 보내버리고 감로 해인의 단비로 원혼을 씻어 바다 밖으로 소멸시키니 인간이 아닌 신선이 사는 세계요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 자하도가 바로 여기로다. 그림 속의 소가 시내를 돌아보는 생명수(生命水)를 찾아라. 는 것이요 그 생

명수는 우성촌(牛姓村=정도령이 계신 곳)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데 지혜 없는 자가 그 속에 수승화강(水昇火降)의 묘법(妙法)이 숨겨져 있음을 어찌 알겠는가? 하늘의 소가 밭을 가는 데 이는 음전(陰田) 양전(陽田)의 영적인 밭인 심승(十勝)의 밭으로 사답칠두(문두우성文武牛星) 즉 복두칠성이 짓는 참된 인간 농사이니라. 크고 위대한 미륵불이 계신 우성촌에서 일심 정정으로 수도하였더니 단비와 같은 감로 해인이 빙글빙글 돌면서 내리는 속에서 감로해인이 털구멍으로 들어가서 피 속의 더러운 마귀를 죽여 내일이 다 달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즉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되느니라.

盤石湧出生命水반석용출생명수로 天下人民解渴 천하인민해갈하니 弓十勝易經法 궁을십승역경법이 死中救生天恩 사중구생천은일세 畫牛鰾溪十勝法 화우고계십승법이 巽震鷄龍靑林 손진계룡청림일세 自古由來儒士 자고유래유사들이 通理者 통리자기누구누구

鷄龍鄭氏海島真人 계룡정씨해도진인 易數不通 역수불통 모르오니 十年工夫修道者 십년공부수도자들 前功可惜家懷 전공가석애처롭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로 천하 인민의 갈증을 해소시키니 궁을 심승의 역경법(易經法)은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니 하늘의 크나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림 속의 소가 시냇물(영원한 생명수)을 돌아보는 심승법을 뜻하니 손진계룡청림을 가르킵니다. 손괘는 계(巽=닭) 진괘는 용(龍)이며 손진은 계룡이고 청림도사를 말한다. 이는 72궁 정도령이 순(巽)이며 81궁 정도령이 진(震)이다 81궁 속에 72궁이 함께 있으니 81궁은 손+진이 된다. 청림의 청(靑)은 동방갑을삼팔목에 청이며 림(林)은 양목두 나무=감람나무와 가지) 72궁 81궁을 말하고 마지막 81궁 속에 72궁이 있

니 결국 81궁이 된다. 72궁은 목토(木塊=나무토끼)이고 81궁 금구(金鳩=금 비둘기)인데 81궁 금구속에 목토가 같이 합해져 있으니 81궁이 구토(鳩兔) 합합지인(相合之人)이 되며, 따라서 81궁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정도령 미륵불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천지개벽의 주인공이며 죽는 세상을 안 죽는 세상으로 만드는 주인공이다. 이는 강중산 선생이 말한 '내 뒤에 두 사람이 더 나온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유교의 선비 중에 역의 진정한 이치를 통달한 자 누구런가? 해도(海島=海隅半島=한반도)에 오신 진인인 손진 계룡 정도령은 역수(易數)에 통달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으니 십 년을 공부한 수도자들이 이전에 힘들게 애를 쓴 노력이 참으로 아깝고 애처롭도다. \*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뭇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http://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조희성 구세주의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2. 대한민국에 여름 장마를 못 지게하겠다.
3. 대한민국으로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겠다.
4.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 대한민국에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

기존 공산당 핵심인물들이 1991.8.20.공산당 해체 반대를 위한 쿠데타를 일으켜서 주역인 고르바초프를 연금시켰다. 이때 세계는 공산당 해체가 실패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때 구세주께서는 단상에서 "고르바초프는 곧 석방된다"고 발표하셨다.

1991년 8월 22일 엘친이 쿠데타 주역들을 체포하고, 1991년 8월 23일 지도부 개편하여 개혁이 승리로 되어질 때에, 1991년 8월 23일 오후 5시경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백주대낮에 승리제단 상공에 쌍무지개를 띄워서 증거하셨다.

### 구세주의 공산당 해체는 무슨 뜻인가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려고

이처럼 공산주의를 없애버린 구세주는 지구촌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공산주의를 없애야만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에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 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제정세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 바로 구세주 조희성님이 전 세계를 마음대로 당신의 분신이 사람 속을 들랑거리면서 조종하고 있다. 분신으로 사람을 조종하지 못하면 구세주가 될 수 없다.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감로를 내려 영생을 주지 못하면 구세주가 아니다. 진짜 구세주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긴자께서는 공산주의 사상이 만연해 있던 1981년 도에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고 선포하셨던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이긴자께서 당신과 동감인 고르바초프를 앞장세워 소련의 실권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소련국민의 마음을 조정하게 하시고, 세계공산주의 국가들의 마음을 조종하게 하시어 공약을 이루신 것이다.

#### 공산주의 붕괴 일지

- 85.3.11... '고르바초프' 당서기장 피선. 공산당 개혁노선 채택.
- 86.7.28... '볼라디보스톡 선언. 아태지역에 해빙무드 조성.
- 87.6. ....개인 이윤추구허용. 경

- 제 개혁.
- 88.3.19. ..신 베오그라드 선언. 소련 본격적으로 탈 이념화.
- 89.8.12. ...동유럽 공산정권 소련의 불개입으로 속속 붕괴.
- 90.9.25... '포괄적 시장경제 개혁.
- 91.6.16.... '엘친 공산주의 끝장 선언.
- 91.6.28.. '코메콘해체. 바르샤바조약기구, 군사기구 해체.
- 91.8.12.... '엘친 공산당배제 조직개편.
- 91.8.20.... '쿠데타' 고르바초프' 실각.
- 91.8.22... '엘친' 쿠데타 주역 체포.
- 91.8.23.. '고르비 지도부 개편. 쿠데타 실패는 개혁의 승리.
- 91.8.26.... '공산당 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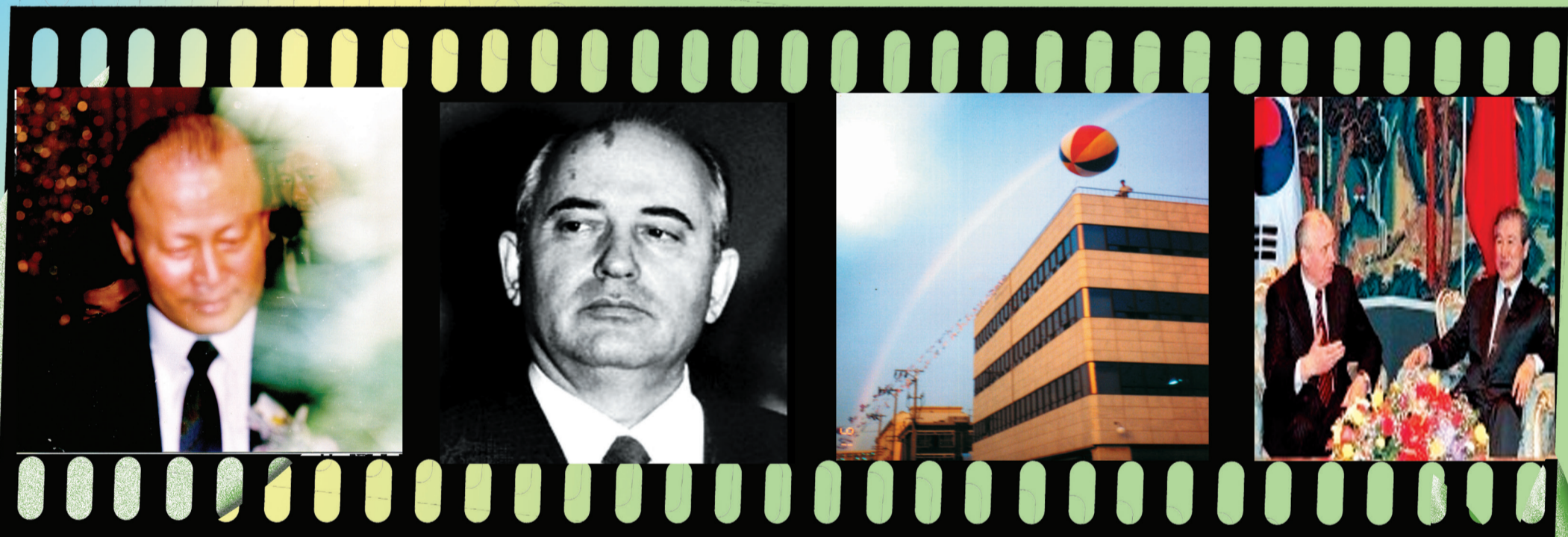
전 세기에 제일 유명하다는 예언가인 볼라시의 노스트라다무스는 < 모든 세기>라는 예언서 속에 1999년 7월에 지구는 멸망당한다고 해 놓았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떤 '다 른 존재'가 지구를 구한 것이다

### 고르바초프 "공산당 해체는 비통한 실책"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글라스노스트 개방을 적극 추구하여 옛 소련 공산체제를 종식시키고 미소군비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199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그 고르바초프가 2006년 6월 2일에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련공산당 와해에 대해 그는 '비통한 실책'이라고 솔직했다.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솔직은 공산주의 해체가 자기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가다보니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공산당 해체 쪽으로 갔다는 뜻을 알 수 있다.



소련 쿠데타 실패의 날 승리제단 상공 위에 뜬 쌍무지개

구세주께서 1981년부터 구원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셨다.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공약을 하신 것이 세계공산주의를 없애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런데 소련 대변인인 케라디 게라시모프'는 소련 공산주의가 1981년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고 하였다.

## 5대 공약의 실현은 전지전능한 구세주임을 증거한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                        |                      |                      |                      |                            |
|------------------------|----------------------|----------------------|----------------------|----------------------------|
| 역곡제단 : (032)343-9981-2 | 김해제단 : (055)327-2072 | 사천제단 : (055)855-4270 | 충주제단 : 010-9980-5805 | 大阪祭壇 : (06)6451-3914       |
| 수원제단 : (031)236-8465   | 대구제단 : 010-6530-7909 | 순천제단 : (061)744-8007 | 양평제단 : 010-2945-8254 | London : (0208)894-1075    |
| 안성제단 : (031) 673-4635  | 마산제단 : (055)241-1161 | 정읍제단 : 010-8628-2758 | 橫浜祭壇 : (045)489-9343 | Sydney : (006)0415-727-001 |
| 평택제단 : (010)5695-8971  | 진주제단 : (055)745-9228 | 군산제단 : (063)461-3491 | 神戸祭壇 : (078)862-9522 |                            |
| 부산제단 : (051)863-6307   | 진해제단 : (055)544-7464 | 대전제단 : (042)522-1560 | 下關祭壇 : (0832)32-1988 |                            |
| 영도제단 : 010-6692-7582   | 영천제단 : (054)333-7121 | 청주제단 : 010-5484-0447 |                      |                            |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